

보도 일시 (인터넷) 2023. 3. 9.(목) 12:00 (지 면) 2023. 3. 10.(금) 조간	배포 일시 2023. 3. 9.(목) 08:30
담당 부서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	책임자 과 장 김진형 (044-203-6922)
	담당자 사무관 우성헌 (044-203-6924) 사무관 이영선 (044-203-6928)
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	담당자 과 장 이상우 (044-203-6415) 사무관 유현진 (044-203-6416)

2023년 대학·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

-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폭넓은 재정지원 확대 -

주요 내용

- 3개 사업*을 통한 일반재정지원 확대로,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 제고
 - * 대학혁신지원사업,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, 국립대학 육성사업
 - 대학의 유연한 사업비 운용을 위해 인건비·경상비 등 집행기준 완화
 - 대학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성과평가 방식 개편 및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지원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3월 10일(금), 국립대·사립대(국립대 법인 포함)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‘2023년 대학·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’을 발표한다.
- 교육부는 올해 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,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.4배 확대하여, ‘규제 없는 지원’과 ‘두터운 재정적 뒷받침’을 통한 ‘대학의 자율적 혁신’을 촉진한다.
 - 특히,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·운영하고, 국립대학의 ‘자율적 혁신’과 ‘사회적 책무성 강화’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
▲ 대학혁신지원 : (2022년) 5,966억 원(국립대지원분 제외) → (2023년) 8,057억 원 (+2,091억 원)
▲ 전문대학혁신지원 : (2022년) 4,020억 원 → (2023년) 5,620억 원 (+1,600억 원)
▲ 국립대학 육성사업 : (2022년) 3,064억 원* → (2023년) 4,580억 원 (+1,516억 원)
*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,564억 원 포함

- 아울러,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,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, **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.**

□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기본 사업비 배분

- 올해는 ‘2022~2024년 대학·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’의 2년차로,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.
 -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,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**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(블록편당)으로 지원한다.**
 - **사업비 총액의 약 70%**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(포물러)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, 재학생 수·학교 수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**권역별·학교별로 배분한다.**
 - ※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(재학생 수),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 배분
-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(2018~2022)의 후속 사업으로,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·개편하여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‘**자율적 혁신**’과 ‘**사회적 책무성 강화**’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.
 - 사업비 총액의 약 60%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(포물러)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, **대학 유형별(거점대·국가중심대·교원양성대)로 우선 배분한 후,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.**

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

- 한편,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,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.

- 대학·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,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*할 수 있도록 한다.

* (기존)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등 집행 가능 → (개선)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(총액 한도 25% 내) 및 기타 경비(총액 한도 10% 내) 집행 가능

- 아울러,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(네거티브) 방식으로 개선하고,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%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교육혁신 지원금(인센티브) 및 성과평가 방식 개편

- ‘선(先)재정지원-후(後)성과관리’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,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(인센티브)을 배분할 계획이다.

※ 대학·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: 사업비 총액의 30%, 국립대학 육성사업 : 사업비 총액의 40%

- 특히,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.

-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,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 및 안내할 예정이다.

- 한편,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, 취업률·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.

< (참고) 대학·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>

대학	I 유형 (일반재정지원)	▶ 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(사립·국립대법인 등) * 국립대학 36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 ▶ 내용: 대학의 체질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▶ 예산: (2022) 5,966억 원 → (2023) 8,057억 원(1교당 평균 69억 원)
	II 유형 (부처 협업형 인재양성)	▶ 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선정대학 ▶ 내용: 부처 협업형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양성 ▶ 예산: (2022) 420억 원 → (2023) 1,052.84억 원
	III 유형 (지방대학 활성화)	▶ 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교 ▶ 내용: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역량강화 ▶ 예산: (2023. 신설) 1,900억 원
전문대학	I 유형 (일반재정지원)	▶ 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103개교(공립·사립) ▶ 내용: 대학의 체질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▶ 예산: (2022) 4,020억 원 → (2023) 5,620억 원(1교당 평균 55억 원)
	II 유형 (지방전문대학 활성화)	▶ 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공·사립대학 69개교 ▶ 내용: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역량 강화 ▶ 예산: (2023. 신설) 600억 원

< (참고)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요 >

국립대학	국립대학 육성사업	▶ 대상: 국립대학 37개교 * 전체 국립대 대상, 한경대-한국복지대 통합 기준 ▶ 내용: 국립대학의 경쟁력·책무성 제고, 자율적 혁신 지원 ▶ 사업기간 : 2023.3.1.~2024.2.29 ▶ 예산: (2022) 3,064억 원 → (2023) 4,580억 원(1교당 평균 124억 원)
------	--------------	--

-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“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·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,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.”라면서,
- “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, 금년도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·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별첨】 1.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
2. 2023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
3.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

